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안내센터 개소

- '25. 7. 18(금)부터 <https://www.으뜸효율.kr>, 콜센터 1566-4984 개통 -
- 8.13.(수) 환급접수 시작, 8.20.(수)부터 환급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오늘('25. 7. 18. (금)) 오전 9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종합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를 개소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4일 '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당일 환급 대상 가전제품 구매분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가전·유통기업 고객센터 등과 협력하여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오늘 안내센터가 개소되면서 콜센터를 통한 유선상담(☎ 1566-4984)과 함께 지난 10여일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현장에서 전달받은 목소리를 반영한 도움말(FAQ), 각 가전사의 환급대상 제품 정보 등을 홈페이지(<https://www.으뜸효율.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으뜸효율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한 4만여명에게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도 진행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총 2,671억원의 예산으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7월 4일 이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8월 13일부터 안내센터에 별도 접수메뉴를 신설하여 접수 받을 예정이며, 접수 후 본인확인 및 제품·서류 확인을 거쳐 접수 일주일 후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은 '사업이 시작된 이후 가전·유통

기업간담회를 통해 확인해보니, 가전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나는 등 가전분야에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품을 이미 구매하고 기다리는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8월 13일 차질없이 신청페이지를 열고 신속하게 환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공단과 가전·유통기업·관련협단체 간 업무협약(MOU)도 추진한다. 이번 MOU에는 지역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리 신청 등에 대한 협력, 에너지 개선 효과 파악을 위해 대형가전제품의 배송·설치 시 가전사에서 수거대상 제품의 에너지등급 확인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담당자	서기관	이민호 (044-203-5141)

